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비교-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지 원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비교-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지 원

# 인 준 서

이지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안산, 인천, 천안시 일대의 13개 초등학교와 방과 후 공부방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105명과 일반가정 아동 110명으로 총 215명이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척도,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은 일반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은 반면, 학교생활적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여가활동참여와 생활지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일반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생활지도와 합리적지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여가활동참여와 합리적 지도를 하는 것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잘 예측해 주었으며, 일반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가 생활지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잘 예측해주었으며, 일반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지시/통제, 거부/적대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을 잘 구별해주는 요인은 아버지의 학력, 거부/적대적 양육행동,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양육행동,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문제 ..... 4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가정 ..... 5
  - 1) 다문화가정 ..... 5
  -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 6
  - 3)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 10
- 2.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 13
  - 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 ..... 13
  - 2)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16
  - 3)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17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 20
- 2. 측정도구 ..... 20

1) 양육참여도 .....	20
2) 양육행동 .....	22
3) 자기효능감 .....	24
4) 학교생활적응 .....	25
3.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7
2.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 아동의 자기효 능감 및 학교생활적응 비교 .....	30
3.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 .....	34
4.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 아동의 자기효 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	36
5.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40
6.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42
7.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판별분석 .....	44

#### V. 논의

.....	46
-------	----

####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부 록

## 표 목 차

〈표1〉 다문화가정 현황 .....	10
〈표2〉 아버지 양육참여도 척도의 문항구성 .....	21
〈표3〉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구성 .....	23
〈표4〉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	24
〈표5〉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구성 .....	25
〈표6〉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	28
〈표7〉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지각된 아버지 양육참여도 비 교 .....	30
〈표8〉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지각된 아버지 양육행동 비 교 .....	31
〈표9〉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	32
〈표10〉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	33
〈표11〉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적응 .....	35
〈표12〉 일반가정에서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	37
〈표13〉 다문화가정에서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	39
〈표14〉 일반가정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40
〈표15〉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41
〈표16〉 일반가정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42
〈표17〉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43
〈표18〉 다문화가정-일반가정 아동을 구분하는 요인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	45
〈표19〉 판별분석 분류 결과 .....	45

## 그 립 목 차

<그림 1> 자기효능기대와 결과기대 .....	7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는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의 인구와 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사회는 점차적으로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건수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에 4,71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33,000건으로 무려 7배가 증가하였고, 전체 결혼 건수 대비 국제결혼의 비중은 1.2%(1990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4년 이후 국제결혼의 비중은 계속 10%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0.8%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10).

이렇듯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자녀의 수도 급증하여 2008년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가 18,769명으로 2005년의 6,121명에 비해 약3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2000년 이후에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 비율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는 대부분 5세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앞으로 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아동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남윤주, 2009).

그러나 국제결혼으로 만들어지는 다문화, 다민족 현상은 한국사회에 또 다른 소외계층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은 사회·문화적인 편견 속에서 적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신혜정, 2007). 또한 한국의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과정이나 결혼생활에서 나타내는 태도를 보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등한 부부관계 및 건강한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국제

결혼가정 구성원들이 겪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부부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갈등이 심화될 경우 가정 폭력이나 이혼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형숙, 2003; 이해경, 2005; 양순미, 2006; 남윤주, 2009, 재인용).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제결혼으로 탄생하는 2세에까지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아직까지 부모 역할은 어머니가 주가 되며 아버지는 부수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그로인해 부모역할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실정이다(현정환, 2004). 근래까지 우리 문화에서 대다수 남성은 자녀양육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아동의 양육이나 교육은 전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다문화가정 역시 자녀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와 어머니가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는 시기가 맞물림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상당수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남윤주, 2009). 서툰 외국 말을 사용하는 어머니로 인해 자녀의 학습부진을 초래하거나(조영달, 2006), 언어발달지체 현상으로 인한 부적응문제(교육과학기술부, 2006),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진 그들 가족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신혜정, 2007), 특별한 이유 없이 또는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또래 내에서의 따돌림 문제(보건복지부, 2005)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아동양육에 직접 참여하는 아버지 또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황영미, 문혁준, 2006, 재인용). 최근에 아버지변인이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문미옥(1983)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아동 양육에 참여하는 양이 적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양육에 참여도가 높은 아버지의 자녀는 독립성과 사회성, 활동성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최경순(1993)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이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결혼가정보다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의 결혼가정이 자녀교육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어머니의 부모경험에 관련된 연구에서도 자녀의 양육에 남편의 적극적인 동반자 역할과 주변의 도움, 정보제공에 대한 외국인 모의 욕구가 많음이 밝혀져,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외국인 모뿐 아니라 남편과 가족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송미경 외,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이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에게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잘 구별해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에 이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에게서 이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서 각각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을 잘 예측해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5.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집단을 잘 구별해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요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가정

#### 1) 다문화가정

Crippen & Brew (2007)는 민족이나 인종이 다른 두 사람간의 관계를 인종/민족간(interracial/interethnic couple)관계 혹은 문화 간 관계(intercultural couple)라 정의하고, 그들 사이의 결혼으로 인해 탄생한 가족은 문화변형 가족(transcultural family)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곽금주, 2008, 재인용).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y)이란 용어는 국적과 문화가 다른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일컫는다.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최근까지 그 범주에 관한 명확한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다. 2006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할 당시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정책대상으로 하였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을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가정 이외에 새터민 가정(탈북자 가정)과 귀국가정(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정) 및 귀화가정(외국 국적의 두 부부가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가정)을 모두 포함하여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전경숙,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특히, 1990년대 초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남성들이 중국동포나 중국 한족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알코올, 빈곤 등의 장애로 국내결혼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에 이미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러시아 등으로 더욱 다변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남윤주, 2009).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국제결혼 현황은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건수보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전체 국제결혼 비율의 72.4%를 차지했다(행자부,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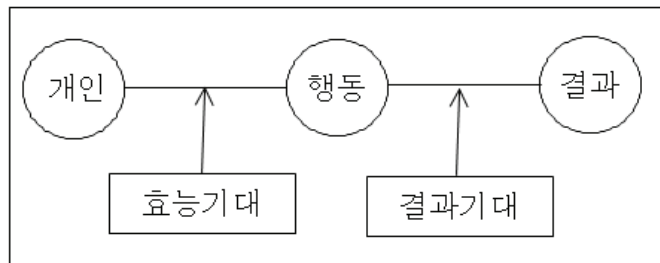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는 언어소통의 문제, 가정불화의 문제, 자녀교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의 문제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자, 2007).

##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1977)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서,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긴장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이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즉 스스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기대나 신념을 말한다(백종진, 2008). Bandura(1977)는 성취 상황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대로서, 효능기대와 결과기대가 있다고 보고 <그림 1>과 같이 두 형태의 기대를 구분하였다. 효능기대란 어떤 행동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판단이고, 결과기대란 이러한 행동이 산출할 것 같은 영향에 대한 판단이다. Bandura는 효능기대가 자기 효능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보다는 동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인창, 2009).

<그림 1> 자기 효능기대와 결과기대 (Bandura, 1977)



자기효능감에 대해 정의 내린 것들을 살펴보면, Sherer 등(1983)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Wood와 Locke(1987)는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으로서 과제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Zimmerman(1998)은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수행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라고 하였다. 김의철(199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자신감이며, 김아영(1997)은 특정과제 수행에 대한 효능감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도 수행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동기변인으로 보고, 이러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설화 하였다(박아청, 최성열, 2007, 재인용).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

감은 행동과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높은 자기효능감은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환경을 다룰 수 있도록 하며, 효능감에 대한 판단은 행동과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 실패 후에 얼마나 탄력적일 것인지 등 이후의 과업수행에 대해 스스로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동기화 시킨다. 이를 동기과정이라고 하는데 귀인, 결과기대 및 인지된 목표 등은 미래의 과업수행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행동조절 능력에 회의를 갖는 사람은 높은 효능감을 보이는 사람보다 후에 행동이 쉽게 소거된다. 넷째, 자기 효능감의 판단은 사고유형과 정서적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 이상으로 개인적인 결함에 집착하고 잠재적인 곤란을 상상하기 때문에 과제수행에 방해를 받으며 과제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적 요구에 적절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다(홍현숙, 2008, 재인용).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행위를 예측하는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배정숙, 1998).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에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그리고 과제 난이도 선호가 있다. 첫째, 자신감(self-confidence)이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축소된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 Jacobs, 1982; 강주연, 2009. 재인용).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상황-특수적인 개념에서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했지만, 이를 일반적 개념으로 확대한다면 자신감은 자신의 가

치에 대한 개인의 확신을 제외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과정을 통해서 성립되고, 정서반응으로 표출된다(Bandura, 1986; Bandura, 1993; 강주연, 2009, 재인용). 둘째, 자기조절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이란 개인이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 자기반응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 체계가 인간행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의 목표인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수행을 판단하고, 긍정적이라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부정적이라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가적인 행동을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차정은, 1997). 셋째, 과제난이도 선호(task-difficulty preference)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 과제의 난이도 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쉬운 과제에서 성공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의 증진이나 저하에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어려운 과제에 성공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의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Bandura, 1998; Latahm & Locke, 1991; 강주연, 2009, 재인용).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가 빈곤한 실정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김인창(2009)의 연구는 또래 친구가 많은 것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학업 평균성적과 자기효능감에서는 부적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팀 리더십 간의 관계를 밝힌 강주연(2009)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조절 효능감이 팀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특수성을 지닌 아동 개개인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대처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국제결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그 자녀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10만7천여 명으로, 이 중 6세 이하 아동이 6만4천40명이며, 이는 전체의 59%를 차지하여 향후 학령기 아동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9년 24,745명이며, 그 중 초등학교 재학아동이 83.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표 1> 다문화가정 현황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모가 외국인인 학생 수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2005	6121	5332	583	206	-	-	-	-
2006	7998	6795	924	279	6695	5854	682	159
2007	13445	11444	1588	413	11825	10387	1182	256
2008	18778	15804	2213	761	16937	14452	1885	600
2009	24745	20632	2987	1126	22264	18845	2519	900
구성비	100.0	83.4	12.1	4.5	90.0 <sup>1)</sup>	91.3 <sup>1)</sup>	84.3 <sup>1)</sup>	79.9 <sup>1)</sup>

\* 출처 : 통계청(2010). 청소년통계 (단위: 명, %)

\* 주 : 1) 모가 외국인인 학생 수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대비임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국제결혼이민자 자녀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이는 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국제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세대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학령기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일반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오성배, 2005), 학교적응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이영주, 2009), 다문화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신혜정, 2007; 양순미, 2007)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적응상의 어려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기초학습 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2세대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언어능력의 부족이 학습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언어발달지체현상과 문화부적응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동의 언어습득 및 발달은 가정환경, 교육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특히 가정환경은 언어 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부모와의 언어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이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이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과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고, 문화적·언어적인 차이와 자신이 혼혈이라는 사실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신혜정, 2007).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집단따돌림을 당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2005)에 따르면 이주 여성의 자녀들 중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17.6%였고,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남윤주, 2009). 한편 전경숙(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소외나 놀림, 차별 등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인 문제보다는, 학교공부나 숙제 및 준비물 등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최근 수행되고 있는데, 고유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와 함께 살수록,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아버지의 학력도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구선숙, 2005)으로 나타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영(2006)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 연구에 의하면, 언어사용 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외모의 차이를 많이 느낄수록 학교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은미(2007)와 하미화(2009)는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지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을 보다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장덕희, 신호선, 2010, 재인용).

## 2.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 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생활한다. 그러므로 최초의 교사는 부모이고, 아동은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인격형성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출생 직후부터 일생을 통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만 아니라 정서,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홍현숙, 2008, 재인용). 이와 유사하게, 이종승(1982)도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한 다른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말하였다(이승화, 2001, 재인용).

부모가 인식하는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태도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순명(1993)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박은혜, 2009, 재인용). 이에 대한 근거로 김경희(2005)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부모의 실제행동보다 더 자녀의 인성적, 행동적인 특성과 관련된다고 하였으며, 자녀의 내적통제성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더 많은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성격특성에서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심혜숙, 전순희, 2008, 재인용).

Schaefer(1965) 역시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뿐 아닌,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란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을 갖고 물적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 사회전통이나 가치 철학을 전달하는 역할, 가정의 통솔자로 어머니와 협력하여 가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 자녀의 지적·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는 역할(Lamb, 1975) 등을 말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 방을 청소하거나 잠자리를 보살피 주기, 자녀의 옷이나 필요한 물건을 사다주기, 자녀와 함께 외출하기, 자녀의 건강보살피기, 자녀들의 모임(생일, 소풍)이나 병원, 유치원, 학교에 데리고 가거나 데려오기, 자녀의 선생님을 방문하거나 학부모회에 참석하기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Baruch & Burnet, 1986)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 양육참여란 자녀 돌보기, 자녀와 놀이 및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식사예절을 가르치는 등 가정에서의 활동, 사회생활에 대한 직·간접적 접촉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거나 자녀의 신상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것 또는 신체적 애정표시 및 훈육하는 역할 등이 포함된다(Bigner, 1979).

한편 최경순(1992)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행동 및 참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양육참여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양육참여의 개념을 자녀에 대한 관심도, 생활지도, 가사참여, 놀이상대로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물리적·신체적 상호관계에 대한 양적 정도라고 정의하였다(최경순·정현희, 1995). 또한 건강관리 및 위생에 관한 역할, 경제적 능력을 갖고 물적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 가정의 화목과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 사회전통이나 가치관·생활철학을 담당하는 역할, 자녀의 학습과 지적능력을 개발하는 역

할, 자녀에게 애정 및 관심을 갖는 역할, 기본 훈육에 관한 역할 등을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보았다(이현숙, 1990). 이와같은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자녀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가 경험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관심과 개입의 정도로 정의하고, 자녀의 생활지도, 학업관리,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가사활동에 대한 조력행동들을 측정하고자 한다.

Lamb(1986)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이 촉진되며, 감정이입능력이 발달하고, 성 정체화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아버지의 능동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의 도덕성과도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는데, 즉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이고 애정적일 때 자녀가 보다 내면화된 이타심과 관대함을 가지게 된다(정현희, 최경순, 1992, 재인용). 이뿐 아니라 Becker(1964)는 온정과 허용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임했을 때 자녀는 더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으며, 적의를 나타내지 않는 건전한 성인이 되어 성인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긍정적 사회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이지혜, 김정옥, 2009, 재인용).

그런데 국제 결혼한 다문화가정의 남성들을 살펴보면, 우리사회에서 비교적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고, 이로 인해 2세대 자녀의 성장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즉 국제결혼한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이 결혼하기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사람이며(윤형숙, 2005), 농촌과 도시의 하류층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였으므로 국제결혼한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경우가 많다(이혜경, 2005; 양순미, 2007, 재인용). 그로인해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고 양육행동 역시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2)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과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는 극히 드물었으며, 자기효능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기에 아버지의 양육참여 또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Bandura(1977)는 자신이 실제 과제를 수행해 본 결과 또는 성공이나 삶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효능감이 달라지고, 부모에 의해서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가진 아동은 자기효능감이 강하다고 하였다. 문혁준(1999)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즉 수용-적대, 자율-통제, 애정-방임, 성취-비성취적인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즉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귀인, 과제 난이도 선호 간에도 깊은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 애정적, 성취지향적 일수록 성장 후 아동의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은 높고, 능력에 성공을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과제를 선택함에 있어 도전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안경미, 2008). 공인숙(1989)이 실시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는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균형 잡힌 민주적 양육태도가 온정이 낮고 통제가 강한 권위적 양육 태도에 비해 높은 자기 역량감을 초래한다고 하였고,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계가 있으며,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반응해서 그들 나름의 발달을 도모해 간다고 결론짓고 있다. 양미숙(2005)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가활동, 생활지도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

기조절 효능감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아버지의 가사활동 참여는 어머니의 작업부담을 덜어주어 가족 역동성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동의 발달에 효과적(Barnett & Baruch, 1987)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버지-자녀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자녀의 감정과 욕구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며(Kelly & Worell, 1997), 유아의 사회적 적응력을 높여주는 것(Coley, 1998)으로 보고되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낮은 가정에서 자란 유아들은 사회적 능력이 낮고 성격적으로도 부적응을 보인다(Hetherington, 1972)고 하였다.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은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연구들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다문화가정 역시 부모는 아동의 일차적 사회화의 모델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3)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관련 변인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학업적 유능감(Flouri & Buchanan, 2004), 사회성 발달(Lamb, Pleck & Levine, 1985)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성귀자, 1999; 김경희, 2000), 학업과 사회성 발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교생활적응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도금혜, 2008, 재인용).

Hurlock(1981)은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사회화 및 협조가 잘되고, 상냥하며, 명랑한 편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정현희, 최경순, 1995; 김광웅, 이인수, 1998; 한미자, 2002)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고 생활지도에 적극참여하며 자녀와 관계된 가사활동에 잘 참여하는 경우일수록, 그 아버지의 자녀는 내적 통제력이 강하며,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시도하고, 성취동기 및 호기심이 높으며, 사회적 활동성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버지가 양육의 제 측면에 참여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혁준(2000)의 연구에서는 인기아의 아버지는 고립아의 아버지보다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친구처럼 자녀와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며 높은 반응수준을 보이는 것은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황영미, 문혁준, 2006, 재인용).

이와 같이 일반가정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안은미(2007)의 농어촌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역 중 가족지지가 가장 높고 교사의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유미,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이 겪게 되는 이러한 학교부적응은 나아가 사회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이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양육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안산, 인천 및 천안시 소재 13개 초등학교와 2개의 방과 후 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각 기관에 방문하여 설문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고 실시하였으며, 인천과 천안의 일부 초등학교는 우편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10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231부로 그 중 한국어를 모르거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경우, 응답에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한 다문화가정 아동 105명과 일반가정 아동 110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 2. 측정도구

##### 1) 아버지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는 일상생활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조사하는 도구로서, 최경순(1992)이 개발하고 김인복(2008)이 수정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척도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로 각각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아동들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아주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를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범주

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5였으며, 자세한 문항구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 ① 여가활동: 자녀와 함께 등산, 외식, 유원지, 놀이터, 영화관 등에 참가하여 즐기는 활동.
- ② 생활지도: 자녀에게 사회생활을 해 가는 데 필요한 기본예절지도,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조력하는 행동.
- ③ 가사활동: 식사준비, 설거지, 집안청소, 가옥수리 등에 참여하는 정도.
- ④ 학습지도: 놀잇감, 책, 학과목에 대하여 아버지가 직접 지도하거나 관심을 갖고, 준비물 챙기기 등을 조력하는 행동.

<표 2> 아버지 양육참여도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s $\alpha$
여가활동	11	1, 5, 7, 10, 12, 13, 20, 22, 27, 28, 30	.89
생활지도	11	2, 4, 6, 9, 14, 15, 18, 19, 21, 25, 26	.89
가사활동	4	3, 8, 17, 24	.85
학습지도	4	11, 16, 23, 29	.70
전체	30		.95

## 2) 아버지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이미정 (1988), 박성연, 이숙(1990)의 연구에 기초하여 임희수(2001)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임희수(2001)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행동을 측정하고 그 적합성이 입증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아버지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인 '일관성 있는 규제(Cronbach's  $\alpha = .39$ )'를 제외한 5개의 하위요인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리커트식 척도로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범주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2였으며, 자세한 문항구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 ① 합리적 지도: 아동을 도와주거나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서 왜 안되고, 왜 용납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행동을 말한다.
- ② 애정: 아동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절감을 나타내며 아동 중심적이면서 아동을 존중, 수용해주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말한다.
- ③ 과보호: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되도록 막고 의존성을 보장해주는 행동으로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행동을 말한다.

④ 지시/통제: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제한하고 간섭하며 지시하는 행동이다.

⑤ 거부/적대: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불만이나 비난을 표시하며 귀찮아하는 태도를 말한다.

<표 3>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i>a</i>
합리적 지도	9	2, 4, 10, 11, 13, 16, 19, 20, 32	.91
애정	9	3, 5, 7, 9, 24, 27, 34, 35, 37	.90
과보호	9	1, 8, 15, 28, 31, 33, 40, 41, 43	.66
지시/통제	6	12, 21, 22, 36, 38, 39	.67
거부/적대	7	6, 14, 17, 18, 25, 30, 42	.76
전체	40		.92

### 3)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김아영, 차정은(1996)이 개발하고, 김아영(1997)이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가지 하위요인 즉,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를 포함하는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제난이도 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5였으며, 자세한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alpha$
자신감	8	1*, 3*, 4, 5*, 10*, 11*, 13*, 16*	.84
자기조절 효능감	11	2, 7, 8, 12, 14, 17, 19, 20, 21, 23, 24	.89
과제난이도 선호	5	6*, 9*, 15, 18, 22	.72
전체	24		.85

\* 역채점 문항

#### 4)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문선모(1977)에 의해 번안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영역과 이상필(1990)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으로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관계, 학교행사 관계에 대한 적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계산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 ‘항상 그렇다’에는 5점을 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으며, 자세한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s $\alpha$
담임교사와의 관계	5	1, 2, 3, 4, 5	.84
교우관계	5	6, 7, 8, 9, 10*	.64
학습활동	5	11, 12, 13, 14, 15	.75
규칙준수관계	5	16, 17, 18, 19, 20	.79
학교행사관계	5	21, 22, 23, 24, 25	.72
전체	25		.91

\* 역채점 문항

### 3.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14.0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정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양육행동, 아동의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을 잘 구분해주는 아버지 양육참여 및 행동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 215명 중 다문화가정 아동이 105명(48.8%), 일반가정 아동이 110명(51.2%)이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 중 남학생은 52명(49.5%), 여학생은 53명(50.5%)이었으며, 일반가정의 아동 중 남학생은 57명(51.8%), 여학생은 53명(48.2%) 이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61.0%가 3학년 이하의 저학년인데 비해 일반가정 아동은 응답자의 79.0%가 4학년 이상의 고학년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두 집단 간 학년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의 국적은 일본이 4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25명(23.8%), 중국이 24명(22.9%)이었으며, 기타국적에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몰도바, 대만, 몽골 등의 국가가 포함되었다.

아버지의 학력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들의 47.6%와 42.7%가 각각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가정 아버지의 46.4%가 대졸 이상인 것에 비해 다문화가정 아버지는 약 4명중 1명(23.8%)이 대졸인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가정 아버지는 중졸이하인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13.4%가 중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두 집단 간 아버지 학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어머니의 학력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들의 45.7%와 38.2%가 각각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가정 어머니의 46.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36.2%가 대졸이상의 학력이었다. 일반가정 어머니는 중졸 이하가 1명(0.9%)인데 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중졸이하가 3.9%로 나타나, 이들 두 집단 간

어머니 학력에 유의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직업에서는 일반가정 아버지의 13.6%가 자영업인데 비해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는 약 20명중 1명(4.8%)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가정 아버지는 사무직 종사자가 52.7%, 다문화가정 아버지는 35.2%였다. 노동직종에 종사하는 아버지는 일반가정이 3.6%인데 비해 다문화가정은 34.3%로 이들 두 집단 간 아버지의 직업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어머니의 직업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일반가정 어머니 4명중 1명(28.2%)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데 비해 사무직 종사자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12.4%에 그쳤다. 일반가정 어머니의 0.9%가 노동직에 종사하였으나,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는 일반가정 어머니가 7.3%인데 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5명중 1명(19.0%)으로 나타나 집단 간 어머니의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 인	구 분	가 족 유 형		X <sup>2</sup>
		다문화 N (%)	일반 N (%)	
성	남 (109)	52 (49.5)	57 (51.8)	69.776***
	여 (106)	53 (50.5)	53 (48.2)	
학년	1학년	15 (14.3)	3 (2.7)	
	2학년	21 (20.0)	1 (0.9)	
	3학년	28 (26.7)	19 (17.3)	
	4학년	12 (11.4)	3 (2.7)	
	5학년	13 (12.4)	57 (51.8)	
	6학년	16 (15.2)	27 (24.5)	
어머니 국적	한국 (110)		110 (100)	
	중국 (24)	24 (22.9)		
	일본 (46)	46 (43.8)		
	필리핀 (25)	25 (23.8)		
	기타 (10)	10 (9.5)		

아버지 학력	무학 (1)	1 (1.0)		23.455***
	초등학교 졸업 (6)	6 (5.7)		
	중학교 졸업 (7)	7 (6.7)		
	고등학교 졸업 (28)	16 (15.2)	12 (10.9)	
	대학교 졸업 이상 (76)	25 (23.8)	51 (46.4)	
	모름 (97)	50 (47.6)	47 (42.7)	
어머니 학력	무학 (2)	1 (1.0)	1 (0.9)	5.218
	초등학교 졸업 (2)	2 (1.9)		
	중학교 졸업 (1)	1 (1.0)		
	고등학교 졸업 (31)	15 (14.3)	16 (14.5)	
	대학교 졸업 이상 (89)	38 (36.2)	51 (46.4)	
	모름 (90)	48 (45.7)	42 (38.2)	
아버지 직업	사무직 (95)	37 (35.2)	58 (52.7)	37.843***
	노동직 (40)	36 (34.3)	4 (3.6)	
	농업 (1)	1 (1.0)		
	자영업 (20)	5 (4.8)	15 (13.6)	
	전문직 (12)	5 (4.8)	7 (6.4)	
	가정주부 (1)		1 (0.9)	
	무직 (2)	1 (1.0)	1 (0.9)	
	기타 (44)	20 (19.0)	24 (21.8)	
어머니 직업	사무직 (44)	13 (12.4)	31 (28.2)	18.651**
	노동직 (9)	8 (7.6)	1 (0.9)	
	자영업 (18)	10 (9.5)	8 (7.3)	
	전문직 (28)	20 (19.0)	8 (7.3)	
	가정주부 (85)	40 (38.1)	45 (40.9)	
	기타 (31)	14 (13.3)	17 (15.5)	
전체	계 (215)	105 (100)	110 (100)	

## 2.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비교

### 1)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비교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M=81.70)가 일반가정 아동(M=96.45)에서보다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아동에게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하위요소 중 여가활동( $t=-4.751, p<.001$ ), 가사활동( $t=-3.958, p<.001$ ), 학습지도( $t=-3.839, p<.001$ ), 생활지도( $t=-3.230, p<.001$ )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학습지도, 가사활동, 생활지도 모두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일반가정 아동에게서 아버지가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지각된 아버지 양육참여 비교

	다문화가정 아동		일반가정 아동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여가활동	28.44	9.036	34.68	10.170	-4.751***
생활지도	31.48	9.379	35.64	9.497	-3.230***
가사활동	11.02	4.169	13.40	4.626	-3.958***
학습지도	10.76	3.655	12.73	3.843	-3.839***
양육참여도 전체	81.70	22.87	96.45	24.58	-4.550***

\*\*\* $p<.001$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거부/적대( $t=6.421$ ,  $p<.001$ ), 애정( $t=-4.650$ ,  $p<.001$ ), 합리적지도( $t=-3.935$ ,  $p<.001$ )하위척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애정과 합리적 지도는 다문화가정 보다 일반가정 아동이 더 많이 경험한다고 지각하였으며, 거부/적대는 일반가정보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더 많이 경험한다고 지각하였다.

<표 8>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지각된 아버지 양육행동 비교

	다문화가정 아동		일반가정 아동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리적지도	26.34	8.993	30.85	7.764	-3.935***
애정	25.90	8.662	31.17	7.978	-4.650***
과보호	23.74	6.152	23.05	5.047	.911
지시/통제	15.71	4.506	14.69	4.146	1.734
거부/적대	17.30	5.097	13.09	4.518	6.421***

\*\*\* $p<.001$

## 2)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비교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M=81.70$ )이 일반가정 아동( $M=96.45$ )보다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 $t=-3.983, p<.001$ ), 자신감( $t=-2.368, p<.05$ ), 과제난이도선호( $t=-2.353,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모두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일반가정 아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다문화가정 아동		일반가정 아동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신감	27.07	4.300	28.46	4.347	-2.368*
자기조절 효능감	32.36	7.937	37.15	6.990	-4.695***
과제난이도 선호	13.82	3.910	15.15	4.332	-2.353*
자기효능감 전체	73.29	12.287	80.75	12.616	-4.395***

\* $p<.05$ , \*\*\* $p<.001$

### 3)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비교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10>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다문화가정 아동		일반가정 아동		<i>t</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담임교사와의 관계	17.69	4.596	16.88	4.516	1.293
교우관계	15.93	3.935	15.55	3.821	.716
학습활동	16.00	3.908	15.55	3.821	.780
규칙준수관계	15.87	3.910	15.75	4.219	.202
학교행사관계	16.08	3.793	15.75	4.219	.538
학교생활적응 전체	83.42	16.211	81.80	14.996	.761

### 3.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적응이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아버지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p<.05$ 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국적이 필리핀인 아동이 가장 높은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한 결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서 필리핀 국적의 어머니와 일본 국적의 어머니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1>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

		사무직	노동직	자영업	전문직	F	Scheffe	
		M(SD)	M(SD)	M(SD)	M(SD)			
아버지	자기효능감	72.24 (11.95)	76.28 (13.89)	70.40 (11.52)	71.60 (14.79)	.849	-	
	직업 학교생활적응	79.92 (13.80)	87.47 (13.80)	96.00 (17.16)	92.40 (24.20)	3.014*	-	
		초졸	중졸	고졸	대졸	F	Scheffe	
		M(SD)	M(SD)	M(SD)	M(SD)			
아버지	자기효능감	67.17 (6.74)	77.14 (18.33)	74.44 (13.51)	71.56 (12.82)	.734	-	
	학력 학교생활적응	77.50 (18.58)	77.00 (20.02)	85.06 (14.62)	83.88 (17.86)	.545	-	
		초졸	중졸	고졸	대졸	F	Scheffe	
		M(SD)	M(SD)	M(SD)	M(SD)			
어머니	자기효능감	76.50 (0.71)	77.00 (0.0)	69.80 (9.24)	75.89 (15.31)	1.171	-	
	학력 학교생활적응	104.00 (11.31)	84.00 (0.0)	79.00 (16.19)	86.92 (17.17)	1.945	-	
		중국	일본	필리핀			F	Scheffe
		M(SD)	M(SD)	M(SD)				
어머니	자기효능감	72.75 (15.10)	73.39 (12.60)	74.80 (10.29)			.333	-
	국적 학교생활적응	83.33 (16.15)	78.96 (17.64)	91.16 (11.26)			3.291*	일본< 필리핀

\* $p < .05$

#### 4.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 양육참여의 하위변인(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과 아버지 양육행동의 하위변인(합리적지도, 애정, 과보호, 지시/통제, 거부/적대),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관계, 학교행사관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 1) 일반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r=.25\sim.49$ ,  $p<.01$ )은 높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생활지도에 참여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자기효능감( $r=.19\sim.55$ ,  $p<.01$ )과 학교생활적응( $r=.25\sim.34$ ,  $p<.01$ )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합리적 지도를 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자기효능감( $r=.19\sim.55$ ,  $p<.01$ )과 학교생활적응( $r=.25\sim.34$ ,  $p<.01$ )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가 거부/적대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하는 경우, 아동의 자신감( $r=-.27$ ,  $p<.01$ )과 담임교사와의 관계( $r=-.30$ ,  $p<.01$ )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버지가 거부/적대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은 자신감이 낮고,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2)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가 여가활동에 참여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자기효능감( $r=.31\sim.38$ ,  $p<.01$ )과 학교생활적응( $r=.27\sim.37$ ,  $p<.01$ )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생활지도를 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자기효능감( $r=.29\sim.35$ ,  $p<.01$ )과 학교생활적응( $r=.40\sim.47$ ,  $p<.01$ )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거부/적대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신감( $r=-.25$ ,  $p<.05$ )간에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아버지가 거부/적대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자신감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5.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1) 일반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일반가정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약 2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일반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R^2$	adj. $R^2$	$R^2$ 변화량	$F$
합리적지도	.238	.231	.238	33.670***

\*\*\* $p < .001$

### 2)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와 합리적 지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약 21%를 설

명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중에서 아버지의 여가활동참여가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을 약 18% 설명하였고, 합리적 지도가 약 3%정도의 설명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R^2$	<i>adj. R^2</i>	$R^2$ 변화량	$F$
여가활동	.178	.170	.178	19.636***
합리적 지도	.212	.196	.034	13.690***

\*\*\* $p < .001$

## 6.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1) 일반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6>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일반가정에서 아버지의 거부/적대, 지시/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약 15%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중에서 아버지의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이 약 6%를 설명하였고 지시/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약 9% 정도의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일반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인	$R^2$	<i>adj. R^2</i>	$R^2$ 변화량	$F$
거부/적대	.059	.050	.059	6.765**
지시/통제	.149	.133	.090	9.338***

\*\* $p < .01$ , \*\*\* $p < .001$

2)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7>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의 생활지도 참여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약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인	$R^2$	$adj. R^2$	$R^2$ 변화량	$F$
생활지도	.160	.152	.160	19.636***

\*\*\* $p < .001$

## 7.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판별분석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아버지의 참여 및 행동과 관련한 변인들 가운데 어떤 것이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집단을 정확히 구분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판별함수의 고유값은 .298이고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을 구분하는 함수 1은 전체변량의 100%를 설명하고 있으며, 판별함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ilk's Lambda값은 .770으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18>을 보면 독립변수의 수가 추가됨에 따라 Lambda의 값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판별의 기능이 더욱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표 19>에 제시된 것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두 집단이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판별함수에 의해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아동을 변별하는 집단의 정확분류비율은 70.7%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전체 105명중 68.6%인 72명이 정확히 분류된 것이며,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전체 110명중 72.7%에 해당하는 80명이 정확히 분류된 결과이다. 즉, 아버지의 거부/적대적 양육행동과 여가활동 참여,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은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잘 분류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다문화가정-일반가정 아동을 구분하는 요인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독립변수	lambda	$n^2$	판별함수와 독립변수와의 상관 함수 1
거부/적대	.838***	.162	-.806
여가활동	.787***	.213	.596
아버지 학력	.770***	.230	.311
고유값			.298
설명분산			100
Rc(Rc <sup>2</sup> )			.479(.229)
Wilks의 람다			.770***

\*\*\* $p < .001$

<표 19> 판별분석 분류 결과

	예측 소속집단			전체
	집단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원래 소속집단	다문화가정	72 (68.6)	33 (31.4)	105 (100)
	일반가정	30 (27.3)	80 (72.7)	110 (100)

전체의 정확분류비율 = 70.7%

##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에게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잘 구별해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에서의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분석한 결과, 일반가정 아동은 4학년 이상의 고학년이 79.0%로 다수를 차지한데 비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3학년 이하의 저학년이 61.0%로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의 국적은 일본(43.8%), 필리핀(23.8%), 중국(22.9%)순이었는데 다문화가정에서 일본 출신의 어머니가 많은 것은 통일교에 속한 일본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박순희, 2009)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한국 어머니간의 학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일반가정의 아버지가 모두 고졸 이상(57.3%)의 학력인데 비해 다문화가정에서는 중졸 이하(13.4%)의 학력을 지닌 아버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징적인 것은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지적수준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노동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는 다문화가정(34.3%)이 일반가정(3.6%)에 비해 현저히 많은데 비해 사무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는 일반가정(66.3%)이 다문화가정(40.0%)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7.6%)가 일반가정 어머니(0.9%)보다 노동직에 더 많이 종사하는데 비해, 교사를 포함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수는 일반가정 어머니(7.3%)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가(19.0%) 더 많았다. 이는 외국인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운데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는 일반가정이 다문화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가운데, 애정과 합리적 지도도 일반가정이 다문화가정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나, 아버지의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은 다문화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이 일반가정 아버지들에 비해서 애정을 표현하거나 합리적 방식으로 지도하기보다는 거부나 적대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수집결과,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는 일반가정의 아버지보다 교육수준이 낮았고, 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본 조사가 공단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의 이같은 여건이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예측은 가능하나,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어머니의 상황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적극적인 동반자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자기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그 가운데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모두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이처럼 낮게 나타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청

소년기의 학업성취와 진로선택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적인 발달을 위한 예방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희(2009)의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지애(2008)가 두 집단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비교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하다. 오히려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정 아동이 학교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주로 저학년에 속하여 학교적응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사연령 때문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다문화가정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다문화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 국적이 필리핀, 중국, 일본 순으로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는 어머니의 국적이 필리핀과 일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나이를 감안할 때, 그들의 어머니인 결혼이민자들이 한

국에 온 시기는 대부분 10년 이상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시기에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은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계 여성보다는 중국과 일본계 여성과의 결혼이 주류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도 중국과 일본인 어머니를 둔 자녀가 다문화가정 아동 전체의 66.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계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과 외모가 비슷하여 학교생활에서 더 적응적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연구결과, 필리핀 어머니의 자녀들이 중국과 일본 어머니의 자녀들에 비해 학교에서 더 적응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의 차이를 확인하여, 일본과 중국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필리핀 어머니의 자녀가 더 낮은 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인다고 밝힌 신혜정(2007)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실제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실태를 대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하여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상관분석결과, 일반가정에서 아버지의 생활지도와 합리적 지도는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반가정 아버지의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신감과 담임교사와의 관계에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아동을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양육방식이 아동의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렵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생활지도와 여가활동 참여는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신감과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다문화가정의 아버지가 아동의 생활지도와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거부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로 아동을 양육할 경우, 아동의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여가활동과 생활지도 참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정지영과 김희화(2005)의 연구,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고 생활지도에 적극 참여할수록 자녀는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활발히 시도하고 사회적 활동성이 뛰어나며 타인과 잘 협력한다는 연구(정현희, 최경순, 1995; 한미자, 2002)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학업적 유능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Flouri & Buchanan, 2004; 도금혜, 2008, 재인용)와 같은 맥락이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연구(황순영, 정영숙, 우수경, 2005)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는 사회적 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Coosey & Fondell, 1996; Coley, 1998; 도금혜, 2008, 재인용)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윤서영, 1999)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는 자신의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도금혜, 2008)할 수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다섯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가정에서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잘 설명해주었고, 다문화가정에서는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와 여가활동 참여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의 여가활동과 합리적인 지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잘 설명해주는 것은 아버지의 거부/적대, 지시/통제적 양육행동이었으나, 다문화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생활지도참여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가정 아버지가 기본예절지도와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조력할수록 아동의 학교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숙(2009)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은 소외나 놀림, 차별 등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인 문제보다는 학교공부나 숙제 및 준비물 등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보완하여 자녀에게 한국사회에서 익혀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의 어떠한 하위요인이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집단을 효과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거부/적대적 양육행동과 여가활동 참여,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약 71%를 정확하게 구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다문화가정에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아버지의 여가활동참여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고, 일반가정에 비해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의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을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구선숙(200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안산, 인천, 천안을 포함한 수도권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자녀 215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문화가정 전체 아동에 대한 결과라고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여러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하여 후속연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이므로, 아동이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나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상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

우도 있었다. 부모님의 직업이나 학력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숫자가 많았음은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면접이나 부모와 담임교사의 평정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의 보고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이 고르게 표집 되지 못하여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에서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표집의 한계점이 조사대상의 심리적인 적응상태를 정확히 비교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연령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잘 고려하여 표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간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생활지도와 여가활동 참여가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을 위한 교육적 개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관련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의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학습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거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주연(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팀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유미(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국인 어머니가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논문집.
- 교육과학기술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 구선숙(2005).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대한 가정의 지위**. 구조환경과 양육환경의 설명력 비교,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순명(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웅,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한국아동학회**, 19(2), 65~75.
- 김경자(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00).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차정은(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김아영(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학회**,

11(2), 1~19.

김의철(1997). 한국 학생의 귀인양식, **한국교육심리학회**, 11(2), 71~97.

김인복(2008).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분석**. 춘천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창(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 친밀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화(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아동학회지**, 26(5), 311-330.

남윤주(2009).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관한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도금혜(2008). 아버지 관련 변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61-872.

문미옥(1983).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선모(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연구** 4.

문혁준(1999).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1.

문혁준(2000). 또래 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인기아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39~52.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 28(1), 141~156.

박순희(2009).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유연성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아청, 최성열(2007).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 수준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 **교육심리연구**, 21(4), 989~1005.

박은혜(2009).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정숙(1998).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적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종진(2008). **아시아 결혼이민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발표회 자료집**.

성귀자(1999).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2007).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송미경, 신호정, 이은경(2008).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혜숙, 전순희(2008).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독립의 관계. **교육연구**, 18, 67-87.

안경미(2008). **아동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불안**. 삼육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미숙(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순미(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 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59~576.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윤서영(1999). **아동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형숙(2003).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 299~339**.

이상필(1990).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 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화(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교육연구, 20**, 85-104.

이영주(200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2)**, 103~119.

이지애(2008).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혜, 김정옥(2009).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61-89.

- 이현숙(1990).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희수(2001). **아동의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덕희, 신호선(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17(3), 123-147.
- 전경숙(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167-185.
- 정지영, 김희화(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9), 163~173.
- 정현영(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 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차정은(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순(199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

**아동학회. 14(2), 115-135.**

통계청(2010). 인구동태통계연보. 국제결혼 현황.

통계청(2010). 2010 청소년통계. 다문화청소년 현황.

<http://www.kostat.go.kr>

한국교육개발원(2009).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하미화(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미자(200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순영, 정영숙, 우수경(200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21~529.**

황영미, 문혁준(2006). 또래수용도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대한가정학회지, 44(2), 83-91.**

행자부(2007).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행정자치부.

현정환(2004). 아버지의 아동발달의 이해 및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어머니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16(2), 171-180.**

홍현숙(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ndura, A., & Adans, N. E. (1977). Analysis of self-efficacy theory of behavioral chang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287-310.*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117-148.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andura, A. (1998). Pers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human adaption and change, *Psychology press*.

Baruch, G. & Barnett, R. (1986).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and children's sex rol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57*, 1211-1223.

Barnett, R. C., & Baruch, G. K.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M. L. Hofflman & L. W. Hoffman, vol.1, N.Y.: Russel Sge. pp. 169~208.

Bigner, J. J. (1979). Attitudes toward fathering and rather-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2), 89-106.

Coley, R. L. (1998). Children's socialization experiences and functioning in single-mother households : the importance of fathers and other men. *Child Development, 69*(1).

Coosey, E. C., & Fondell, M. M.(1996). Spending time with his kids: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father's and children's lo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693-707.

- Crippen, C., & Brew, L. (2007). Intercultural Parenting and the Transcultural Family: A Literature Review. *The Family Journal, 18*, 324-327.
- Flouri, E., & Buchanan, A. (2004). Early Father's and mother's involvement and child's later educational outcomes. *British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141-153.
- Hetherington, E. (1972). Effects of father absence on personality development in adolescent daugh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7*, 313-26.
- Hurlock, E. B. (1981). Child development. N.Y.: Mcgraw-Hill Publication, 497.
- Kelly, J. A., & Worell, J. C. (1997). New formulation of sex androgyny. *A Critical Clinical Psychology, 45*(6).
- Lamb, M. E. (1975). Father :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1), 245-266.
- Lamb, M. E., Pleck, J. H., & Levine, J. A. (1985).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The effects of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In B. S. Lahey & A. E. Kazdin(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8). New York : Plenum.
- Lamb, M. E. (1987). *The Father's Role: Cross-cultural perspectives.*
- Latham, G. P., & Locke, E. A.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ocesesses, 50*(2), 212-247.
-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552-557.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Te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Wood, R., & Locke, E. (1987).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and grade goals to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 ABSTRACT

**The influence of Children-perceived Fathers' Nurturing  
Attitude on Self-efficacy and Adaption for School  
-A Comparative Study on Between Children's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Lee, Ji Wo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providing basic information on improvi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understandi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e families through Fathers' Nurturing Attitude as the main factors affecting self-efficacy and Adaption for School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ies.

For this research, a questionnaire targeted 13 elementary school and 2 day care centers in Incheon, Ansan, and Cheonan city. 105 children from multi-culture families and 110 children from general families were

surveyed with this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the children from general family,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showed lower average value in fathers' nurturing attitud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showed lower average value than ones from general family in self-efficacy.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adaption for school. Second,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thers' occupation and mothers' nationality. Third, fathers' leisure activities and life guidanc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and adaption for school of multi-cultural children. But, fathers' living guidance and reasonable guidance had significantly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and adaption for school of general children. Fourth,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athers' leisure activities and reasonable guidance was associated with self-efficacy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fathers' living guidanc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adaption for school of multi-cultural children. Fifth, fathers' refusal/hostile parenting, participated in children's leisure activities and academic background of father were important variables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multi-cultural family and general family. Finally,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General Family, Fathers' Nurturing Attitude, Self-efficacy, Adaption for School

# 부 록

부록 1. 양육참여 질문지

부록 2. 양육행동 질문지

부록 3. 자기효능감 질문지

부록 4. 학교생활적응 질문지

No. \_\_\_\_\_

## 설 문 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평소생활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이 설문지는 시험지가 아니며 또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설문지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자세히 읽고 자신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연구실

지도교수 이 정 윤  
연구자 이 지 원

\* 본 조사는 통계법 제 13, 1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㉔ 다음 질문은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세요.

1. 성별은? ①남 ②여

2. 나이는? \_\_\_\_\_세

3. 학년은? 초등학교 \_\_\_\_\_학년

4. 아버지의 학력은?

- ①무학 ②초등학교 졸업 ③중학교 졸업  
④고등학교 졸업 ⑤대학교졸업이상 ⑥모름

5. 어머니의 학력은?

- ①무학 ②초등학교 졸업 ③중학교 졸업  
④고등학교 졸업 ⑤대학교졸업이상 ⑥모름

6. 우리집의 가정형편은?

- ①매우 어렵다 ②어려운 형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잘 산다 ⑤매우 잘 산다

7. 아버지의 직업은?

- ①사무직(회사, 공무원 등) ②공장, 건설노동자 ③농업 ④자영업(상업 등)⑤  
전문직(의사, 교사 등) ⑥가정주부 ⑦직업 없음 ⑧기타\_\_\_\_\_

8. 어머니의 직업은?

- ①사무직(회사, 공무원 등) ②공장, 건설노동자 ③농업 ④자영업(상업 등)⑤  
전문직(의사, 교사 등) ⑥가정주부 ⑦직업 없음 ⑧기타\_\_\_\_\_

9. 부모님의 고향은? (나라이름을 쓰세요): 아버지 \_\_\_\_\_ 어머니 \_\_\_\_\_

## 부록 1. 양육참여도 척도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평소 나의 아버지의 행동으로 생각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1	아버지는 가끔 영화관에 함께 가신다.	1	2	3	4	5
2	아버지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자상하게 일러주신다	1	2	3	4	5
3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나를 돌봐주실 때 설거지를 도와신다	1	2	3	4	5
4	아버지는 여러 사람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1	2	3	4	5
5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외식을 자주 하신다	1	2	3	4	5
6	아버지는 내가 단체 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권하신다	1	2	3	4	5
7	아버지는 가끔 나의 놀이상대가 되어주신다	1	2	3	4	5
8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나를 돌봐 주실 때 집안을 치우시고 정돈하신다	1	2	3	4	5
9	아버지는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을 가르쳐 주신다	1	2	3	4	5
10	아버지는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끔 함께 가주신다	1	2	3	4	5
11	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 알 때까지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해 주신다	1	2	3	4	5
12	아버지는 나와함께 취미생활(등산, 운동, 낚시)을 하신다	1	2	3	4	5
13	아버지는 내가 놀고 있을 때 허물없이 끼어들어 어린이들이 노는 방식으로 가끔 놀아주신다	1	2	3	4	5
14	아버지는 어떤 일에 대하여 나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신다	1	2	3	4	5
15	아버지는 선생님이나 이웃 어른께 인사를 잘하도록 가르치신다	1	2	3	4	5
16	아버지는 학용품이나 학교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가끔 챙겨주신다	1	2	3	4	5
17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나를 돌봐주실 때 세탁을 도와신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18	아버지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를 종종 설명해 주신다	1	2	3	4	5
19	아버지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1	2	3	4	5
20	아버지는 나와 함께 친지를 방문하거나 외출을 자주 하신다	1	2	3	4	5
21	아버지는 매일 학교 숙제를 꼭 해야한다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22	아버지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마련하신다	1	2	3	4	5
23	아버지는 숙제나 만들기를 할 때 도와주신다	1	2	3	4	5
24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나를 돌봐주실 때 가끔 식사준비를 도와주신다	1	2	3	4	5
25	아버지는 친구의 입장에서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신다	1	2	3	4	5
26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보도록 권하신다	1	2	3	4	5
27	아버지는 나의 건강을 위해 함께 운동을 하신다	1	2	3	4	5
28	아버지는 가끔 유원지나 동물원에 함께 가주신다	1	2	3	4	5
29	아버지는 나를 박물관, 전시회, 도서관 등에 가끔 데려가 주신다	1	2	3	4	5
30	아버지는 나와 함께 오락게임을 해 본적이 있으시다	1	2	3	4	5

## 부록 2. 양육행동 척도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평소 나의 아버지의 행동으로 생각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 이다	그런 편이다	늘 그렇다
1	아버지는 교우관계나 학교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신다	1	2	3	4	5
2	아버지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잘 설명해 주신다	1	2	3	4	5
3	아버지는 칭찬을 잘 해주신다	1	2	3	4	5
4	아버지는 가족 간에 협력해서 행동하도록 지도하신다	1	2	3	4	5
5	아버지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다	1	2	3	4	5
6	아버지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이해하기 보다는 꾸중을 하신다	1	2	3	4	5
7	아버지는 께안아주고 다독여주신다	1	2	3	4	5
8	아버지는 항상 옆에서 나를 보살펴 주신다	1	2	3	4	5
9	아버지는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 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다	1	2	3	4	5
10	아버지는 질문을 하면 아는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애쓰신다	1	2	3	4	5
11	아버지는 잘못에 대해 화를 내실 때 화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신다	1	2	3	4	5
12	아버지는 나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시는 편이다	1	2	3	4	5
13	아버지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1	2	3	4	5
14	아버지는 나를 귀찮게 여기신다	1	2	3	4	5
15	아버지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지시를 하신다	1	2	3	4	5
16	아버지는 물건들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지도하신다	1	2	3	4	5
17	아버지는 나의 요청이나 질문을 못들은 척할 때가 많으시다	1	2	3	4	5
18	아버지는 말을 붙이면 귀찮아하신다	1	2	3	4	5
19	아버지는 다른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신다	1	2	3	4	5

	문항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 편이다	늘 그렇다
20	아버지는 어떤 일에 대해 두려워하면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	1	2	3	4	5
21	아버지는 나의 행동을 고치려고 잔소리를 하시는 편이다	1	2	3	4	5
22	아버지는 하는 일을 잠자코 보지 못하고 간섭을 하신다	1	2	3	4	5
23	아버지는 허락된 TV시청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신다	1	2	3	4	5
24	아버지는 나를 부드럽게 대하신다	1	2	3	4	5
25	아버지는 나쁜 성격에 대해 나에게 비난의 말을 하신다	1	2	3	4	5
26	아버지는 부모님과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신다	1	2	3	4	5
27	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5
28	아버지는 나를 집에서만 놀게하고 못나가게 하신다	1	2	3	4	5
29	아버지는 정해진 취침시간을 꼭 지키도록 하신다	1	2	3	4	5
30	아버지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많이 보신다	1	2	3	4	5
31	아버지는 하라는 것보다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많다	1	2	3	4	5
32	아버지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신다	1	2	3	4	5
33	아버지는 위험해 보이는 놀이는 못하게 하신다	1	2	3	4	5
34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 하신다	1	2	3	4	5
35	아버지는 새로운 일에 대해 나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신다	1	2	3	4	5
36	아버지는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을 제한할 때가 많으시다	1	2	3	4	5
37	아버지는 나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신다	1	2	3	4	5
38	아버지는 “빨리 자라”, “학교에 늦겠다” 등의 잔소리를 잘 하신다	1	2	3	4	5
39	아버지는 내가 보는 만화나 TV, 놀이에 대해 자주 간섭하신다	1	2	3	4	5

	문항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 편이다	늘 그렇다
40	아버지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잔소리를 하신다	1	2	3	4	5
41	아버지는 내가 다른 아이와 문제가 생기면 직접 나서신다	1	2	3	4	5
42	아버지는 집에서 시끄럽게 하면 짜증을 내신다	1	2	3	4	5
43	아버지는 내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도와 주려고 하신다	1	2	3	4	5

### 부록 3. 자기 효능감 척도

아래 질문을 자신과 같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해당번호에 ○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감을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일을 순서를 정해 차례로 처리한다	1	2	3	4	5
3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	2	3	4	5
4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1	2	3	4	5
6	나는 일이 쉬운 것일수록 좋다	1	2	3	4	5
7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9	만약 내가 일을 선택한다면 나는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10	나는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받는다	1	2	3	4	5
11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한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과 생각은 대체로 정확하다	1	2	3	4	5
13	주변 친구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서 일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	2	3	4	5
15	좀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1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른다	1	2	3	4	5
17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18	나는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이 재미있다	1	2	3	4	5
19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1	2	3	4	5
20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잡을 수 있다	1	2	3	4	5
21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	1	2	3	4	5
22	나는 아주 쉬운 일보다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더 좋다	1	2	3	4	5
23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1	2	3	4	5
24	나는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될 때까지 해본다	1	2	3	4	5

#### 부록 4. 학교생활적응 척도

다음은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자신의 학교생활을 잘 나타내는 정도를 해당번호에 ○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한다	1	2	3	4	5
2	나는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다	1	2	3	4	5
3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매우 반갑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4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매우 친절하다	1	2	3	4	5
5	내년에도 지금의 담임선생님이 또 담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1	2	3	4	5
6	나는 우리 반 아이 누구와도 잘 어울려 지낸다	1	2	3	4	5
7	내가 친구에게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한다	1	2	3	4	5
8	우리 반 아이들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1	2	3	4	5
9	학교에서 놀이나 회의할 때 많은 친구들이 내 의견을 잘 따라준다	1	2	3	4	5
10	우리 반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11	공부시간이 재미있다	1	2	3	4	5
12	숙제와 학습준비를 빠짐없이 해온다	1	2	3	4	5
13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1	2	3	4	5
14	예습과 복습을 꼭 한다	1	2	3	4	5
15	공부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1	2	3	4	5
16	당번일 때는 아침 일찍 등교하여 정해진 일을 열심히 한다	1	2	3	4	5
17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오른쪽으로 다닌다	1	2	3	4	5
18	학교 물건이나 빌린 친구 물건을 내 물건처럼 소중히 한다.	1	2	3	4	5
19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차례를 지킨다	1	2	3	4	5
20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통에 버린다	1	2	3	4	5
21	애국조회 시간에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1	2	3	4	5
22	그리기, 글짓기 같은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한다	1	2	3	4	5
23	운동회는 덥고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한다	1	2	3	4	5
24	봉사활동에 즐거운 마음으로 꼭 참여 한다	1	2	3	4	5
25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등)에 그 뜻을 알고 집에 국기를 단다	1	2	3	4	5